

# 歸眞寺와 간행 불경 연구

The Study of Gwijin-sa and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Gwijin-sa

이 상 백 (Lee, Sang-Baek)\*

## ◁ 목 차 ▷

- |                  |                       |
|------------------|-----------------------|
| 1. 서 론           | 3.1 간행 경전의 종류와 서지적 특징 |
| 2. 귀진사의 역사적 성격   | 3.2 귀진사 간행 경전의 의미     |
| 2.1 귀진사의 연혁      |                       |
| 2.2 귀진사와 성수사의 관계 | 4. 결 론                |
| 3. 귀진사의 경전 간행    | <참고문헌>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황해도 서흥(瑞興) 고덕산(高德山)에 위치한 귀진사(歸眞寺)와 그 사찰에서 간행한 불경의 연구를 통해서 귀진사의 불교문화사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귀진사의 역사적 성격을 다루고자 하였는데, 특히 당시 불경 간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두 사찰인 귀진사와 성수사(星宿寺)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둘째, 귀진사 간행본들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서지적인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귀진사 간행 불경은 12종이 확인되며, 그 중 10종이 현존하고 있다. 셋째, 귀진사 간행 불경의 특징적인 면에 집중하여 귀진사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귀진사 간행 불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명종대의 보우(普雨) 등 불교 주요 위치에 있었던 승려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인데, 그 점에 집중하여 귀진사의 당시 번성 정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귀진사는 조선 명종대에 상당히 번성했던 사찰이었으며, 특히 불경 간행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행 불경을 통해서 당시 보우 등의 불교 주요 위치에 있었던 승려들이 귀진사의 불경 간행과 사찰 운영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要語: 歸眞寺, 星宿寺, 普雨, 大方廣佛華嚴經疏, 龍龜手鑑, 十地經論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sambaltop@hanmail.net)

접수일: 2014년 5월 28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8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note Gwijin-sa(歸眞寺) which is a temple at Mt. Goduk on Seoheung, Hwang-hae Province and th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Gwijin-sa. Especially, this study aimed on the culture historical value of Gwijin-sa on Buddhism.

First, this study examined Gwijin-sa's historical concept, especially the relation of Gwijin-sa and Seongsu-sa(星宿寺), because these temples published Buddhist scriptures at the same time.

Second, bibliographical features are examined by researching Buddhist scriptures directly. Gwijin-sa published twelve Buddhist scriptures and ten scriptures are remained.

Third, this study was focus on the value of Gwijin-sa by examining Buddhist scriptures' special features. The most distinguished feature of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Gwijin-sa is that this temple had a connection with famous monks such as Bou(普雨). These monks played a central role in Buddhism during king Myeongjong period in Joseon Dynasty.

The result of study shows that Gwijin-sa was quite prosperous during king Myeongjong and this temple especially concentrated on publishing Buddhist scriptures. In addition, through Buddhist scriptures,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famous monks who played a important role in Buddhism such as Bou had influence on Gwijin-sa's publishing and managing.

Key words: Gwijin-sa, Seongsu-sa, Bou, Taebanggwangbul hwaumgyung so, Rhonggham-sugam, Shipjigyeong-ron

## 1. 서론

조선전기는 송유억불을 표방하였으나 고려대 종교의 영향으로 왕실에서 계속하여 내적으로 불교를 신봉하였음은 물론이며, 지방에서도 불교를 주된 종교로 믿어왔다. 표면적으로는 불교를 탄압하였으나, 왕실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왕후들은 선대를 기리기 위하여 적극 불교를 숭상하였다. 또한 중앙에서는 유교와 관련된 경전뿐만 아니라 각종 불교 경전들을 간행하였다. 특히 세조대에 이르면 조선은 전적으로 불교를 숭상하기에 이르며,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여 수많은 불교경전을 간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선시대 불교의 흐름은 연산군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승과를 폐기시키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연산군 이후로 탄압되던 불교는 명종대에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가 있었다. 명종대 초기에는 문정왕후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불교를 극진히 신봉하여 명종 5년(1550)에 폐지되었던 선교(禪敎) 양종(兩宗)을 부활시키고 승과·도첩제(度牒制)를 다시 실시하며, 승려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짧았던 문정왕후의 대리청정 시기만큼이나 불교의 부흥은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문정왕후가 승하한 이후 다시금 불교는 조선의 중심에서 멀어진다.

이 같은 조선전기 불교의 흐름 속에서 귀진사(歸眞寺)는 황해도 서흥(瑞興) 고덕산(高德山), 또는 송덕산(崇德山)에 위치하여 16세기 명종대 불교의 부흥과 쇠퇴를 함께한 사찰이다. 특히 이 사찰은 당시 불교 경전 간행에 힘쓴 사찰로 주목할 수 있다. 귀진사에는 경판을 보관하던 대장전이 있었으며, 『용감수감』, 『법화경』, 『화엄경』, 『십지론』, 『사십이장경』, 『부모은중경』 등 간행 경전의 판목 수가 2,000여개에 달했는데, 판목들은 1928년 극락전의 천정을 보수하면서 발견되었고 그 일부가 현재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중이라고 한다.<sup>1)</sup> 현재 귀진사 판본으로 현존하는 경전은 모두 16세기에 간행되었으며, 경전간의 간행 시기도 상당히 긴밀하다.

1) 리기웅, 변룡문, 김수용, 『귀진사』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20-21.

또한 귀진사는 16세기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에 부각된 승려 보우(普雨, 1509~1565)를 비롯한 불교계 최고 위치에 있었던 승려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명종대에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았던 보우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찰이란 점은 귀진사의 당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16세기에 짧은 기간 동안 중흥기를 누렸던 사찰이지만, 당시 불교의 흥망성쇠를 함께 하며 불교 경전 간행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주목해야 할 사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활발히 불교 경전 간행이 이루어졌던 사찰임에도 그간 귀진사에 대한 연구가 드물게 진행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특히 귀진사의 불교 경전 간행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명종 당시 귀진사와 함께 황해도 서흥 고덕산에 위치하던 성수사(星宿寺)라는 사찰에서 불교 경전 간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찰간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각종 사료와 연구에서 이 사찰간의 관계를 혼동하여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귀진사의 불교 경전 간행 문화를 이해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점이다.

귀진사에 대한 연구는 귀진사의 연혁과 배치, 건축양식, 사적비, 귀진사의 유물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북한의 선행연구<sup>2)</sup> 정도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귀진사의 역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귀진사에 관한 사료가 상당히 부족했음에도 귀진사의 역사적 상황을 잘 밝혔다. 하지만 귀진사와 성수사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으며, 또한 귀진사의 불교 경전 간행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일제시기에 간행된 향토지에서는 귀진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sup>3)</sup> 전거를 밝히지 않고 작성된 근대의 자료이므로 완전히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 밖의 다른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귀진사의 불교경전 간행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진사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후에 사찰 간행 경전의 분석을 통해서 귀진사 불경 간행의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초점을 두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2) 리기웅, 변룡문, 김수용, 『귀진사』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3) 黃海道教育會, 『黃海道郷土誌』 (海州: 黃海道教育會, 昭和12[1937]).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귀진사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귀진사의 연혁과 귀진사와 성수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귀진사와 성수사의 관계는 두 사찰의 간행 불경에 중심을 두어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3장에서는 귀진사에서 간행한 경전의 서지적인 특징을 직접 분석하고, 경전 간행에 참여한 발원자, 각수 등의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서 귀진사의 간행 불경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귀진사의 역사적 성격

귀진사에 대해서는 1937년에 간행한 『황해도향토지』를 주로 인용하여 고려 중기에 창건한 성수사(星宿寺)의 한 원(院)으로 있다가 조선 명종 때 보우에 의해서 대장전을 짓고 독립된 사찰로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sup>4)</sup> 이 사료는 다양한 자료에서 귀진사의 주요한 개념으로 인용된다. 하지만 본 사료는 전거를 밝히지 않고 작성된 근대 자료이며, 북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성수사와 귀진사를 같은 사찰로 보는 등<sup>5)</sup> 다양한 자료에서 귀진사에 대해서 혼동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귀진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고자, 귀진사의 연혁 및 성수사와의 관계 규명에 초점을 두어 사찰의 역사적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 2.1 귀진사의 연혁

귀진사는 황해도 서흥의 고덕산에 위치한 사찰로 ‘덕을 높이는 산(崇德 또는

4) 黃海道教育會(1937), 517.

5) 리기웅, 변룡문, 김수용(2009), 14쪽에 의하면 ‘귀진사의 다른 이름은 성숙사(星宿寺, 원 발음은 성수사가 되어야 하지만 책에 서술된 그대로 옮기도록 한다)로 처음에는 성숙사로 부르다가 후에 귀진사(歸眞寺)로 이름을 고치면서 함께 썼으며 나중에는 귀진사로만 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高德)’ 아래 위치한 ‘진여(眞如)로 돌아간다(歸)’는 뜻을 지닌 사찰이다. 歸眞寺는 歸進寺라고도 하며 이체자를 사용하여 飯眞寺라고도 한다. 귀진사가 위치하고 있는 황해도 서흥은 남쪽의 멸악산맥과 북쪽의 연진산맥 사이에 위치해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형 분지를 이루고 있는 험난한 지형이다. 서흥에는 많은 산들이 있고, 그 산들과 함께 사찰이 형성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덕산(高德山)의 성수사(星宿寺)와 귀진사(歸眞寺),<sup>6)</sup> 운마산(雲磨山)의 석문사(石門寺), 오봉산(五峯山)의 고정사(高井寺), 정족산(鼎足山)의 석련사(石蓮寺), 자비령의 안국사(安國寺)와 자비사(慈悲寺), 오덕산(五德山)의 속명사(續命寺) 등이 험준한 산 속에 형성되어 있었다.<sup>7)</sup>

서흥은 고려대에는 동주(洞州)라고 불렀는데 조선 태종 15년(1415)에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세종 6년(1424)에 서흥도호부가 되었으며, 현종 12년(1671)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영조 38년(1762)에 다시 도호부가 되었다. 서흥은 산맥이 험준하여 군사의 요충지기도 하였으나, 한편 도적이 자주 출몰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지형과 서흥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귀진사가 언제 어떻게 건립된 절인지는 관련된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귀진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는 현재 1709년에 건립한 『귀진사사적비(歸眞寺事蹟碑)』가 있다. 하지만 사적비가 조선 후기에 건립되어 조선 전기 귀진사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가 없으며, 사찰의 건립 사실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이 사적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홍치연간(1488~1505)에 대웅전을 중수했다는<sup>9)</sup> 기록을 통해서 홍치연간, 또는 그 보다 앞서 귀진사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가정 41년(1562) 4월에 대장전(大藏殿)을 건립하기 시작하였으며,<sup>10)</sup> 현종

6) 고덕산에 두 사찰이 함께 위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2.2 귀진사와 성수사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1 黃海道 瑞興都護府.

8) 『성종실록』 성종 2년(1471) 5월 25일 정유조, 『명종실록』 명종 12년(1557) 4월 1일 갑신조, 『명종실록』 명종15년(1560) 12월 2일 계사조, 『경종실록』 경종 1년(1721) 4월 25일 을묘조 등의 실록 기사에 서흥에 도적이 출몰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9) 『歸眞寺事蹟碑』 중: “…而弘治重修大雄殿…”

10) 『歸眞寺事蹟碑』 중: “…而大藏殿 則嘉靖四十一年壬戌四月經始焉…”

5년(1664)에는 동전(東殿)을,<sup>11)</sup> 숙종 8년에는 선당(禪堂)을,<sup>12)</sup> 숙종 9년(1683)에는 동상실(東上室)을 중수 및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그런데 숙종 19년(1693) 계유년에는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귀진사 자리에는 빈터로 남아 있었으며,<sup>14)</sup> 다시 중수하면서 귀진사를 보완하고 사적비를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귀진사의 연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여러 서흥부 읍지들을 통해서 귀진사가 계속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 후기 문집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사찰을 찾은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귀진사는 현재 북한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2.2 귀진사와 성수사의 관계

귀진사가 어떤 사찰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각종 사료에 귀진사와 함께 등장하는 성수사(星宿寺)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동시대에 귀진사와 성수사가 고덕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행 불경들의 간기면에 등장하며, 읍지 등의 각종 사료에서 귀진사와 성수사를 관계가 있는 절로는 보고 있으나 같은 절인지 다른 절인지는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먼저 앞의 「귀진사사적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귀진사는 최소한 홍치연간 또는 그 보다 앞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적비에는 성수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귀진사는 「귀진사사적비」 이전의 사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가 없다. 한편, 성수사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김치

11) 「歸眞寺事蹟碑」 중: “… 且榮大率類是東殿之創 在於崇禎後甲辰 ….”

12) 「歸眞寺事蹟碑」 중: “… 禪堂重修之年則 □崇禎後五十五年壬戌歲也 ….”

13) 「歸眞寺事蹟碑」 중: “… 越明年癸亥僧環林新構東上室 于大雄殿之東 ….”

14) 「歸眞寺事蹟碑」 중: “… 崇禎後甲辰 而山之僧忠□主之越三十年癸酉鞠爲□□遺墟獨存重愴 ….”

15) 조선 후기의 문인들이 귀진사를 방문했다는 것은 산문을 통해서 알 수 없으나, 문집의 시를 통해서 귀진사를 찾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귀진사에 대한 시가 기록되어 있는 문집은 김석일(金錫一, 1694~1742)의 『허주와유고(虛舟窩遺稿)』, 이봉환(李鳳煥, 1710~1770)의 『우념재시문초(雨念齋詩文鈔)』, 강준흠(姜浚欽, 1768~?)의 『삼명시집(三溟詩集)』, 홍인모(洪仁謨, 1755~1812)의 『족수당집(足睡堂集)』 등이 있다.

양(金致陽, ? ~1009)이 동주(洞州)에 성수사를 건립했다는 글을 통해서<sup>16)</sup> 최소한 1009년 이전에는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성수사는 고려대서부터 서흥에 자리 잡은 절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료만으로는 두 사찰의 관계는 알 수 없으며, 두 사찰 모두 황해도 서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흥과 관련된 사료를 통해서 두 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중종 25년(1530)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서흥도호부에 위치한 다른 절들과 함께 성수사가 고덕산(高德山)에 있다고 하지만 귀진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sup>17)</sup> 책이 편찬된 1530년이면 사적비에 등장하는 대웅전을 중수한 시기인 홍치연간보다 후대의 시기이지만 성수사에 대한 기록만 보인다. 즉, 고덕산에는 성수사라는 사찰만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정조 23년(1799)에 어명으로 편찬한 『범우고(梵宇攷)』에는 성수사가 일명 귀진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sup>18)</sup> 이 책을 통해서 서흥 고덕산에 있는 성수사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절의 이칭이 귀진사임을 알 수 있다. 『범우고』는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조선 후기 전국적으로 조사된 사찰현황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정리된 종합적인 사료로,<sup>19)</sup> 당시 어명으로 편찬한 만큼 조선 후기의 사찰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료에서 성수사를 절의 대표 이름으로 하여 두 사찰을 같은 사찰로 보고 있는 것은 당시 두 사찰을 같은 사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행본의 간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고덕산에 두 사찰의 이름이 함께 보인다. 명종 14년(1559)에 성수사에서 간행한 『능엄경(楞嚴經)』 권말에는 ‘嘉靖三十八年己未九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成板’, 명종 13년(1558)에 귀진사에서 간행한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의 권말에는 ‘嘉靖三六年戊午二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眞寺刊板’<sup>20)</sup> 이라는 간기가 있다. 즉 비슷한 시기에 서흥

16) 『高麗史節要』 권2 穆宗宣讓大王 癸卯 6년 2월: “... 洞州人金致陽 ... 洞州立祠, 額曰星宿寺 ...”

1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1 黃海道 瑞興都護府: “[佛宇]星宿寺在高德山 ...”

18) 『梵宇攷』 중: “... 瑞興 寺刹星宿寺 在高德山 一名歸眞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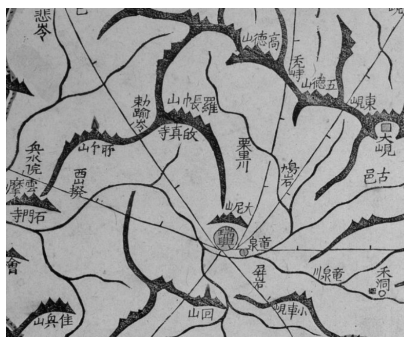
19) 오경후, “正祖의 佛教政策과 梵宇考의 佛教史的 價値,” 『佛敎學報』 제63집(2012. 12), 272.

고덕산에 두 사찰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사찰에서 경전을 간행할 때 간기에 새겨진 간행처는 그 경전의 정확한 간행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는 그 당시 사찰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후대 기록이지만 서흥부 읍지를 통해서도 두 사찰의 상황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순조 28년(1828)에 편찬한 『서흥지(瑞興誌)』에는 귀진사가 고덕산에 있으며 본래 성수사라고 불렀다고 하여 두 사찰을 같은 사찰로 기록하고 있으며,<sup>21)</sup> 고종 24년(1887) 이후에 편찬된 『서흥부지(瑞興府誌)』에는<sup>22)</sup> 성수사가 지금은 없는 사찰이라는 설명과 귀진사가 고덕산에 위치한 사찰임을 기록하여 두 절은 서로 다른 절로 기록하며, 두 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23)</sup>



<그림 1> 「동여도」의 서흥



<그림 2> 「대동여지도」의 서흥

20) 무오년은 가정 36년이 아닌 37년(1558)이다.

21) 『瑞興誌』 중: “歸眞寺 在栗里坊高德山府治北三十里 或云本星宿寺 ….”

22) 『瑞興府誌』는 일본 천리대학교 소장본이며, 편찬시기를 알 수 없으나 권말에 수록된 서흥부 선생안의 마지막 인물인 김규승(金奎升)이 서흥부에서 관직을 한 시기가 1887년이기에 그 이후의 시기로 읍지 편찬 시기를 잡았다.

23) 『瑞興府誌』 중: “佛宇 星宿寺 今無 … 歸眞寺在高德山縣北距三十里勿井坊 ….”



<그림 3> 「여지도」의 서흥부

이 같은 현상은 비록 후대본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지도에서도 나타난다. 김정호 제작으로 추정하는 『동여도』에는 서흥 지역에 성수사와 귀진사가 함께 보이지만 『대동여지도』에는 귀진사만 보인다. 하지만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의 귀진사는 고덕산이 아닌 나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여도』에서는 고덕산에는 성수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지도의 표기들은 각종 읍지와 사찰에서 간행한 경전의 간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여도』에서 두 사찰을 따로 표기한 것은 두 사찰을 각각의 사찰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밖의 다른 지도에서는 서흥에 성수사가 보이지 않으며 모두 귀진사가 고덕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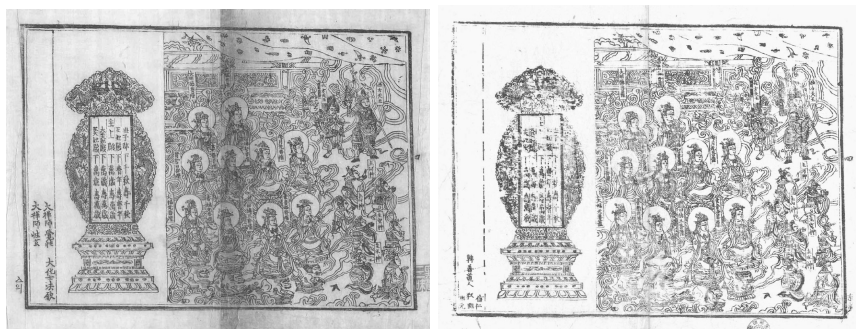
위와 같은 사료를 보았을 때, 귀진사와 성수사는 분명 관계가 있는 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같은 사찰인지 다른 사찰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정조대에 어떻게 조선의 종합적으로 사찰을 조사하여 편찬한 『범우고』에서 성수사의 이름을 대표로 하여 두 사찰을 같은 사찰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료에서는 성수사와 귀진사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37년에 간행된 『황해도향토지』에는 귀진사가 약 800년 전(1100년대)에 창건된 성수사

(星宿寺)의 한 암자로 있다가 약 360여년전(1560~70년대)에 불교 부흥의 명승인 보우 대사 등의 노력으로 하나의 사찰로 중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24)</sup>

이와 같이 두 사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찰은 같은 사찰일까. 이는 간행된 경전을 직접 살펴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성수사 간행 경전은 3종으로 『능엄경』과 『십지경론』, 그리고 『부모은중경』이 있으며, 귀진사 간행 경전은 7종이 있다. 그 중 현존본을 살펴보면 각각 간행지가 서흥 고덕산의 귀진사와 성수사로 같은 지역의 다른 사찰로 간행지를 명기하고 있다.

우선 성수사 간행본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능엄경』은 자체적으로 판을 새겨서 간행한 것으로 보이며, 『십지경론』은 대장경을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두 경전 모두 ‘봉축(奉祝)’과 ‘상축(上祝)’이라고 하여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주상 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등의 임금과 왕비 등을 축원하는 글이 보인다. 시주질에는 『능엄경』은 ‘화엄종중덕전해인사주지 영운(華嚴宗中德前海印寺住持靈雲)’ 등의 발원자(發願者)가, 『십지경론』에는 ‘판선종사도대선사검봉은사주지 보우(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 普雨)’와 ‘판교종도대사검봉선사주지 천측(判敎宗都大師兼奉先寺住持 天則)’의 발원자를 필두로 한 다양한 시주자가 보인다. 『능엄경』의 전 해인사 주지 영운은 보우와 천측 다음에 발원자로 등장하며 『십지경론』의 각 권말에 보이며, 권9 말엽의 ‘간자 영운(刊字 靈雲)’을 통해서 각수로까지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능엄경』에서 발원자 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중덕 영운(中德 靈雲)이 『십지경론』에서는 여러 발원자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하며, 각수로까지 활동을 한 것을 통해서 성수사에서 간행한 현존본 중에는 『십지경론』이 보다 많은 공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24) 黃海道教育會, 『黃海道郷土誌』(海州: 黃海道教育會, 昭和12[1937]), 517.



<그림 4> 동국대학교 소장 『십지경론』(좌)과 『대방광불화엄경소』(우) 변상도

그런데 성수사 간행본 간의 유사성은 귀진사 간행본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우선 귀진사에서 간행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는 성수사에서 간행한 『십지경론』과 앞의 체제가 비슷하다. 이는 경전 시작부분의 변상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두 책 모두 ‘화엄해회성상(華嚴海會聖像)’이라는 같은 변상도가 있으며 그 끝에는 ‘주상전하만세수만세(主上殿下萬歲壽萬歲)’ 등의 봉축(奉祝)의 내용을 담은 같은 형태의 패기가 보이며 패기 옆에 화사(化士)의 명단이 기입되어 있다. 변상도의 우측 변란에 ‘四’라고 하여 변상도의 쪽수를 기입한 표기 방법도 동일하다. 이는 같은 판을 중복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변상도 다음부터 경전 내용이 시작된다.

변상도의 패기뿐만 아니라 성수사 간행본의 권말에서 확인되는 ‘봉축(奉祝)’은 귀진사에서 명종 13년(1558)에 간행된 『금강경오가해』와 『대방광불화엄경소』, 명종 18년에 간행된 『용감수감(龍龕手鑑)』 등에도 ‘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등의 글로 나타난다. 또한 발원자인 『십지경론』의 보우와 천측은 귀진사의 『용감수감』과 『대방광불화엄경소』에 보이며 『능엄경』의 대시주자였던 영운(靈雲)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권말에 보우, 천측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두 간행본에 보이는 각수 또한 유사하다. 『능엄경』 권말 간자질(刊字秩)에는 각수 명단이 나오는데, 경웅(閔雄), 정환(正還), 도성(道成), 일엄(日奄), 혜연(惠衍), 채식(債湜)의 6명 각수가 보인다. 그런데 『십지경론』에는 권3 말엽

일엄(日奄), 권5 말엽 혜웅(惠雄), 권6 말엽 학진(學珍), 권7 말엽 일섬(日暹), 권8 말엽 혜인(惠仁), 권9 말엽 영운(靈雲), 혜연(惠衍), 대의(大義), 권10 말엽 혜능(惠能), 권11 말엽 조영(祖英), 권12 도성(道成) 등 다양한 각수가 나오는데 『능엄경』의 간행 또는 시주에 참여한 인물도 보인다. 두 책의 간행 시기도 긴밀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복된 각수들이 책의 간행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찰 간행본의 연화질(緣化秩)을 살펴보면 두 사찰의 관계는 더욱 명확해진다.

<표 1> 성수사 및 귀진사 경전 간행 참여자

| 간행지 | 경전명칭       | 刊字                                                                                                             | 韓善                                     | 鍊板                 | 別座     | 飯頭     | 熟頭     | 供養         | 化士                 | 勸緣                         | 書寫     | 監刊 | 校正 |
|-----|------------|----------------------------------------------------------------------------------------------------------------|----------------------------------------|--------------------|--------|--------|--------|------------|--------------------|----------------------------|--------|----|----|
| 星宿寺 | 楞嚴經        | 罔雄, 正還, 道成, 日庵, 惠衍, 守衍, 債湜                                                                                     |                                        |                    |        |        |        | 能閑         | 雪淳                 |                            |        |    |    |
|     | 十地經論       | 德雲, 日庵, 惠雄, 學玲, 日暹, 惠人, 靈雲, 大義, 惠衍, 惠能, 祖英, 道成                                                                 |                                        |                    |        |        |        |            | 法欽, 靈臺, 覺能, 處安, 釋珪 | 信熙                         |        |    |    |
| 歸眞寺 | 華嚴經疏       | 信人, 釋熙, 熙元, 晶還, 罔雄, 覺仁, 一奄, 一庵, 惠行, 大義, 學下, 大義, 惠能, 祖英, 守衍, 惠衍, 熙信, 碧岩, 祖允, 惠正, 智衍, 華清, 天雄, 信衍, 債湜, 竺玲, 信惠, 一眞 | 信人, 釋熙, 熙元, 玄秀, 日暹, 一暹, 處安, 釋珪, 釋熙, 熙祖 | 玲熙, 惠衍, 天雄, 靈熙, 道堅 | 智仁, 義正 | 天玉, 志閑 | 法明, 法堅 | 天令, 玲俊     | 龍珠, 熙元, 龍珠, 釋圭, 儀聰 | 信熙, 道岩, 儀聰, 信仁, 龍珠, 熙元, 釋圭 | 大義, 法達 | 信玄 |    |
|     | 恩重經        |                                                                                                                |                                        |                    |        |        |        |            |                    |                            |        |    |    |
|     | 蓮經別讚       |                                                                                                                | 信熙                                     |                    |        |        |        |            |                    |                            |        |    |    |
|     | 佛祖三經       | 能慧, 道成                                                                                                         |                                        |                    |        |        |        | 學連         | 熙宗                 |                            |        |    |    |
|     | 法華經        | 道成, 罔雄, 日庵, 一暹, 守衍                                                                                             |                                        |                    |        |        |        | 惠能, 一眞     | 智嘗, 釋熙             |                            |        |    |    |
|     | 金剛經<br>五家解 | 法通, 釋圭, 祖悅, 義罔, 敬能, 釋熙, 戒岑, 大禪, 戒?, 法談, 學罔, 守仁, 道成, 正還, 覺仁, 守衍                                                 |                                        | 止惠                 |        |        |        | 法熙, 彥輝, 玄寬 | 智嘗, 性?, 信默         | 惠能                         |        |    |    |
|     | 龍龕手鑑       |                                                                                                                | 釋熙, 熙圓                                 |                    |        |        |        |            | 釋熙, 熙圓, 信仁         |                            | 法達     |    |    |
|     | 誠初心學人文     | 守衍                                                                                                             |                                        |                    |        |        |        |            |                    |                            |        |    |    |

발원자의 경우는 경전 간행 당시 사찰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직접적으로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은 경전 간행을 위해서 사찰에서 각 역할을 하며 상주했을 것이다. 성수사 『십지경론』의 권연 처안(處安)은 귀진사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알선도인으로도 활동했으며, 성숙사 『십지경론』의 각수 혜능(惠能)은 귀진사 『금강경오가해』 간행에서는 권연으로 그리고 『법화경』 간행에서는 공양주로 참여하였다. 또한 성수사 『십지경론』의 각수 일섬(日暹)은 『대방광불화엄경소』에서 알선도인으로 『법화경』에서는 각수로 참여했다. 그리고 귀진사의 주지인 신희(信熙)는 『십지경론』과 『대방광불화엄경소』에서는 권연으로, 『연경별찬』에서는 알선도인으로 활동했다.<sup>25)</sup>

불교 경전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 상당수 중복되는 점은 두 사찰 간행본의 주요한 특징이며, 비슷한 시기에 경전 간행에 참여한 인물이 중복되는 것은 두 사찰의 상관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표 1>에 나타나는 인물 중 신희(信熙)는 귀진사 지주(持住)다. 귀진사 지주인 참학(叅學) 신희(信熙)가 성수사 간행본인 『십지경론』에서 권연(勸緣)으로 활동한 것은 두 사찰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사찰의 간행본 비교를 통해서 간행본의 특징 및 실질적인 간행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사찰이 같은 사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각수는 대부분 두 사찰에서 함께 활동을 하였으며, 화사, 권연 등 실질적으

25) 물론 불경 간행에서 각수들이 그 절의 소속이라 할 수 없으며, 유사한 지역에서 사찰간 이동하며 사찰관을 간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각수들의 이름만으로는 두 절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실례로 위의 간행 참여자 중 벽암(碧岩), 도성(道成), 일암(一庵), 혜연(惠衍), 수연(守衍), 학변(學卞), 천웅(天雄)은 1564년에 황해도 문화 구월산의 폐엽사(頤葉寺)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각수로도 활동하였음이 확인된다. 특히 박도화, “朝鮮時代 佛教版畫의 樣式과 刻手,” 『강좌미술사』 제29호(2007. 12), 195쪽에 의하면 도성(道成)은 당시에 변상도를 새기는 변상도 전문 각수로도 다양하게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574년에 황해도 문화(文化) 흥율사(興栗寺)에서 간행한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과 1561년에 평안도 상원(祥原) 해탈사(解脫庵)에서 간행한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간기에 간화(刊畵) 도성(道成)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보는 사항은 사찰 소속의 각수를 밝히고자함이 아니며, 두 사찰에서 경전 간행을 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인원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로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사찰인데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역시 간기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성수사의 이름으로 간행된 현존본은 명종 10년(1555)의 『부모은중경』과 명종 12년(1557)의 『십지경론』, 명종 14년(1559)의 『능엄경』이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간행된 귀진사의 간행본은 명종 12년(1557)의 『대방광불 화엄경소』 일부와 명종 13년(1558)에 간행된 『금강경오가해』가 있다. 간기를 볼 때, 분명 고덕산(高德山) 성수사(星宿寺) 또는 고덕산(高德山) 귀진사(歸眞寺)로 간행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분명 간행한 구체적인 장소는 다르게 밝히고 있다.

더욱이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2 말엽의 간기가 ‘嘉靖三六年丁巳(1557)七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이며 『십지경론』의 ‘嘉靖三六年丁巳(1557)八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刊板’인 것은 두 사찰이 다른 사찰이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두 경전의 간행은 한 달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으며,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권12 이후에도 7년 후인 명종 19년(1564)까지 계속 간행되기 때문에 분명 간행 장소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분명 두 사찰을 혼동하는 사료가 많았으며, 간행본에서는 두 사찰의 독립적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두 사찰은 상당히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찰의 같은 인물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며 경전 간행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사찰의 거리가 차이가 있었다면 거의 유사한 시기에 두 사찰의 경전 모두에 같은 인물이 간행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근거들에 의거해서 생각해볼 때, 가까이에, 또는 거의 맞닿아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두 사찰이 하나의 기능을 하며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찰은 각각의 기능을 하다가 결국 하나의 사찰로 여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두 사찰은 한 사찰로 여겨지면서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었을 것이다.

### 3. 귀진사의 경전 간행

#### 3.1 간행 경전의 종류와 서지적 특징

현재 확인되는 귀진사 간행 경전은 성수사 간행 경전을 포함하여 총 12종이 있으며, 그 중에서 10종이 현존하고 있다. 간행 경전의 현황은 <표 2>와 같다.<sup>26)</sup>

<표 2> 귀진사 간행 전적 현황

| 서명       | 간행시기                     | 간기                                                | 간행근거                 |
|----------|--------------------------|---------------------------------------------------|----------------------|
| 父母恩重經    | 명종 1년(1546)              | 嘉靖25年丙午8月黃海道瑞興地崧德山歸進寺開刊                           | 淸芬室書目 <sup>27)</sup> |
|          | 명종 3년(1548)              | 嘉靖21年6月日始...戊申春季月日畢                               | 연구논문 <sup>28)</sup>  |
|          | 명종 10년(1555)             | 嘉靖35年乙卯6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刊板                          |                      |
| 蓮經別讀     | 명종 1년(1546)              | 嘉靖20年丙午之夏海道瑞興地歸眞寺開刊                               | 동국대학교 소장             |
| 佛祖三經     | 명종 5년(1550)              | 嘉靖29年壬申黃海道瑞興地歸進寺留板平安道平壤府開刊                        | 동국대학교 소장             |
| 妙法蓮華經    | 명종 9년(1554)              | 嘉靖33年甲寅孟春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刊                          | 고려대학교 소장             |
| 十地經論     | 명종 12년(1557)             | 嘉靖36年丁巳8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刊版                          | 동국대학교 소장             |
| 金剛經五家解   | 명종 13년(1558)             | 嘉靖36年戊午2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眞寺刊板                          | 연세대학교 소장             |
| 楞嚴經      | 명종 14년(1559)             | 嘉靖38年己未9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成板                          | 동국대학교 소장             |
| 龍龜手鑑     | 명종 18년(1563)             | 嘉靖42年高德山歸進寺開板                                     | 규장각 소장               |
| 大方廣佛華嚴經疏 | 명종 11년(1556) ~ 20년(1565) | 嘉靖35丙辰6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眞寺開板 / 嘉靖43年甲子春畢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 | 동국대학교 소장             |
| 誠初心學人文   | 선조 5년(1572)              | 隆慶6年壬申正月日瑞興眞眞寺開板                                  | 서울대학교 소장             |
| 童子習      | 알 수 없음                   |                                                   | 故事撮要                 |
| 十七史略     | 알 수 없음                   |                                                   | 故事撮要                 |

26) 엄밀히 말해서 귀진사와 성수사의 간행본은 구분하여야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사찰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다가 결국 하나의 사찰로 통합되었다고 가정하여, 성수사 간행본을 귀진사 간행본으로 보기로 한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귀진사에서 간행한 전적은 많지 않다. 하지만 『고사촬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간행시기 미상의 두 전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16세기에, 그것도 선조 5년(1572)에 간행된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종대에 간행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짧은 시기에 일반적으로 핵심적인 5대 불교경전으로 여겨지는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 『원각경』 중 네 경전을 간행했으며, 명종 11년(1556)에서 명종 19년(1564)까지 120권 39책의 『대방광불화엄경소』를 간행했다. 귀진사에서 간행한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제21책에서 제31책까지는 현존하지 않지만 나머지 현존하는 판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권말에 시주질, 연화질, 간기 등 간행에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경전 간행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4대 핵심적인 불교 경전 이외에도 『법화경』, 『화엄경』과 관련된 경전들도 간행되었다. 『연경별찬』은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 『묘법연화경』의 각품(品)마다 찬(讚)·송(頌)을 붙여서 저술한 경전이며, 『십지경론』은 화엄경의 십지품(十地品)을 풀어서 설명한 경전이다. 이 두 경전이 『법화경』 및 『화엄경』과 함께 간행되었다는 것은 귀진사에서 이 두 경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출가한지 얼마 안 된 승려들에게 불교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불조삼경』도 현존하고 있다.

현존하지 않는 경전으로는 세 종의 전적이 보이는데, 특히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친 불교 경전인 『부모은중경』은 귀진사의 이름으로 명종 1년(1546)과 명종 3년(1548) 두 번, 성수사의 이름으로 명종 10년(1555)에 한 번 간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경전이 무려 가까운 시기에 세 번이나 다르게 간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찰에서 본 경전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27) 『淸芬室書目』 202쪽에 의하면 ‘嘉靖二十五年丙午八月黃海道瑞興地崧德山歸進寺開刊’이라고 판본의 간기를 밝히고 있다.

28) 송일기, “韓國本 『父母恩重經:漢文』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19호(2000. 6), 200~201쪽에 의하면 귀진사는 ‘嘉靖21年6月日始 … 戊申春季月日畢’로, 성수사는 ‘嘉靖35年乙卯6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刊板’으로 간기를 밝히고 문종 1년(1451) 명빈 김씨의 발원으로 궁실에서 간행한 판본을 모본으로 하여 번각한 같은 판본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판본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수 있다. 또한 불교 경전 이외에도 유교의 기초 덕목에 관한 내용을 모은 아동들의 교과서인 『동자습』과 중국 태고로부터 오대에 이르기까지의 17가지의 정사를 간추려 모은 역사서인 『십칠사략』도 간행되었음을 『고사촬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비록 두 책에 대해서는 간행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다른 경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모든 경전의 간행이 3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 귀진사의 규모와 그 번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귀진사 간행 경전 중 현존본의 서지적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귀진사 간행본 중에서 보우를 비롯한 최고 위치에 있었던 승려들이 간행을 주도한 『십지경론』과 『대방광불화엄경소』, 그리고 『용감수감』의 간행상태가 형태적으로 상당히 정교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 사찰판본과는 달리 문정 왕후의 불교 부흥의 한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간행 경전이기에 왕실 판본과 같은 정교함이 보인다. 그 중 『십지경론』은 대장경의 번각본이며, 『대방광불화엄경소』는 120책의 거질로 매 권말에 시주자 및 발원자, 각수 등의 명단과 간기가 있는 정교한 판본이다. 명종 당시에 간행한 이 두 경전은 귀진사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인조 13년(1635)에 송광사에서 간행하였는데,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귀진사 판본을 비롯한 다른 판본이 현존하고 있지만, 『십지경론』은 현재 귀진사 간행본 및 귀진사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판본 이외의 다른 판본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용감수감』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사례가 많지 않으며, 국내 현존본으로 가장 시기가 이른 간행본은 귀진사 판본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귀진사 간행본 중에서 관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경우도 보인다. 귀진사에서 간행한 『불조삼경』은 고려 공민왕 10년(1361) 원암사에서 간행한 불조삼경 계열로 현재 원암사 판본과 조선 세종 31년(1449)에 간행한 회암사 판본이 귀진사에 앞서서 같은 계열로 등장한다.<sup>29)</sup> 그 중 귀진사에서 간행한 판본은 관에서 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이상백, “『佛祖三經』의 간행과 판본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학원, 2012), 82.



그 밖에 판본은 주로 일반적인 사찰 판본의 전형을 보여주는 형태로 형태 서지학적 측면에서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귀진사 간행본 『연경별찬』은 전체적으로 판본 상태가 정교하지 못하고 글자가 번져있어서 내용을 보기가 쉽지 않은 등 간행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으며, 『계초심학인문』은 『몽산화상법어(蒙山和尚法語)』 등 다양한 글이 혼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복잡한 형태의 간행본임이 확인된다.

### 3.2 귀진사 간행 경전의 의미

귀진사 간행 경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면모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일부 경전에서 명종대 불교계 최고 승려였던 보우(普雨) 및 최고 위치의 승려들, 그리고 다양한 시주자와 간행 참여자가 보인다는 점이다. 보우가 간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경전은 『십지경론』과 『대방광불화엄경소』, 그리고 『용감수감』이 있다. 특히나 『십지경론』과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보우와 불교의 최고직에 있었던 승려들을 필두로 다양한 발원 및 시주자, 간행 참여자가 보이며 그 명단들을 나열하고 있다. 다른 경전들보다 이 두 경전이 특히나 간행에 참여한 승려들이 많은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빚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교를 숭상했던 문정왕후가 명종의 대리청정을 하면서 불교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여 명종 5년(1550) 12월에는 양종 복립을 명하였으며,<sup>31)</sup> 보우가 명종대에 판선종사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奉恩寺住持)가 되었고<sup>32)</sup> 승려들의 승과를 다시 실시하게 된다. 그 중에서 이 경전들은 특히나 교종 시험에 사용되었던 경전이었다. 다음을 살펴보자.

선종과 교종은 3년마다 한 번씩 중의 시험[選試]을 실시하되 선종이면 『전등(傳燈)』, 『염송(拈頌)』을, 교종이면 『화엄경(華嚴經)』, 『십지론(十地論)』을 시험 처 각각 30명씩 뽑는다.<sup>33)</sup>

31) 『명종실록』 명종 5년(1550) 12월 15일 갑술조.

32) 『명종실록』 명종 6년(1551) 6월 25일 임오조.

이 내용은 『경국대전』에 나오는 승려들의 과거에 관한 내용으로 명종 당시에 성종대에 편찬한 『경국대전』의 예전(禮典) 도승(度僧)조에 근거하여 승과를 시행하였는데,<sup>34)</sup> 특히 교종의 승려는 『화엄경』과 『십지론』으로 시험을 치렀다. 실제로 명종 7년(1552)에 선종 21인, 교종 12인으로 승려를 뽑았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이 중 이 시험에 사용되었던 두 경전은 바로 귀진사에서 간행에 힘썼던 두 경전이다. 당시 두 경전을 적극 간행하였다는 점은 승과와 관련하여 이 경전들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불교 최고 위치에 있는 승려들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승과에 사용되던 경전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정성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부분은 경전의 다양한 발원 및 시주자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두 경전의 간행에 참여한 대표적인 발원 및 시주자들은 다음과 같다.<sup>36)</sup>

<표 3> 귀진사 간행본 『대방광불화엄경소』와 『십지경론』의 대표적인 발원·시주자 명단

| 대방광불화엄경소                              |                            |
|---------------------------------------|----------------------------|
| 승려                                    | 그 외 인물                     |
| 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br>普雨(10,50,120)       | 大施主 崔壽溫(6)<br>前參奉金進元李弼(20) |
| 判敎宗事都大師兼奉先寺住持<br>天則(10,38,50,117,120) | 前旅師李根必(20)<br>前旅師康碩元(20)   |
| 敎宗判事都大師前奉先寺住持 一珠(32)                  | 前旅師金順文(20)                 |
| 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 一雄(38)                 | 前參奉金守亨(20)                 |

33) 『경국대전』 예전(禮典) 도승(度僧). “禪敎兩宗 每三年選試 禪宗則傳燈拈頌 敎宗則華嚴十地論 各取三十人.”

34) 『명종실록』 명종 6년(1551) 1월 12일 경자조의 기사를 보면 『경국대전』의 도승조가 불교를 떠받들고 있던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올바르게 못한 법을 시행한다는 충훈부 도사(忠勳府都事) 정현(鄭堧)의 상소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 승과는 『경국대전』에 근거하여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35) 『명종실록』 명종 7년(1552) 4월 12일 갑자조.

36) 표의 인물들은 시주질의 전체 인물이 아니며, 시주질에는 대표적인 발원 및 시주자들 명단 이외에 많은 이름이 있으나, 대표적인 인물들만 밝히며 실질적으로 경전 간행에 참여한 각수, 권언, 알선 등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완전히 동일한 명칭으로 이름이 중복될 경우에는 같은 이름에 중복적으로 나오는 권 또는 책의 차례를 부기하였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인물이 등장하는 권차를 부기하며, 『십지경론』은 권차가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구성이어서 책의 차례를 부기한다.

| 대방광불화엄경소               |                      |
|------------------------|----------------------|
| 승려                     | 그 외 인물               |
| 判敎宗事都大敎師奉先寺住持 雪梅(120)  | 禦侮將軍金必同(20)          |
| 大施主前上元住持參學 六通(109,112) | 禦侮將軍金荷同妻千今(20)       |
| 大施主中德 靈雲(6)            | 前旅師金漢祜女金時(20)        |
| 時行持任 壤二(10)            | 開城府大施主鄭順良記付鄭千同兩主(37) |
| 前貝華寺住持大禪師 乘雲(19)       | 信川地大施主 洪順宗兩主(37)     |
| 大施主道人智愚(19)            | 安岳地大施主 張孫兩主(37)      |
| 神光寺住持中德 玄敏(22)         | 大施主瑞興府記官金千岭妻李氏(45)   |
| 正陽寺住持大師 法慈(22)         | 大施主前參奉姜仲唱(56)        |
| 歸眞寺住持參學 信熙(22)         | 大施主瑞興地禦侮將軍盧永唱兩主(58)  |
| 永燈寺住持參學 敬緝(22)         | 施主禦侮將軍安又止兩主(58)      |
| 大施主參學 性衍(23)           | 禦侮將軍朴順貞(95)          |
| 大施主比丘 靈元(24)           | 大施主平安道江東朴順貞妻福知(96)   |
| 大施主比丘 道成(29)           | 大施主龍岡前參奉李實妻又氏日時(96)  |
| 大施主比丘 守衍(30)           | 大施主咸從地禦侮將軍韓明禮兩主(99)  |
| 大施主月精寺住持 敬宗(34)        | 大施主禦侮將軍韓進禮兩主(99)     |
| 禪宗中德貝葉寺住持 靈叔(35)       | 大施主瑞興記官金千岭妻李氏(103)   |
| 華嚴宗中德前伽耶寺住持 法達(35)     | 鳳山前參奉金自治(105)        |
| 貝葉寺施主 玉暹(37)           | 施主前參奉文致成兩主(106)      |
| 田穀寺大施主 天目(37)          | 大施主遂安地李難行妻貴非(109)    |
| 時行持任壤二(38)             | 大施主江西地崔貴孫兩主(117)     |
| 妙明持任熙正(39)             | 大施主定川地趙元妻□□(119)     |
| 大施主華嚴宗大敎師烟峯寺住持 玄敏(55)  |                      |
| 大施主比丘 義正(55)           |                      |
| 前吉禪寺持任 玲熙(56)          |                      |
| 華嚴宗中德正陽寺住持 崇印(57)      |                      |
| 華嚴宗中德靈通寺住持 惠鋒(57)      |                      |
| 華嚴宗中德寶齋寺持音 志卞(57)      |                      |
| 華嚴宗中德元岩寺持音 志全(57)      |                      |
| 華嚴宗中德軍工寺持音 信罔(57)      |                      |
| 華嚴宗大逃淨水寺持音 仁旭(57)      |                      |
| 華嚴宗大逃勝安記付 善今靈駕(57)     |                      |
| 玄風寺持音 德異(57)           |                      |
| 梵堀寺持音 信成(57)           |                      |
| 華嚴宗中德正因寺住持 玄光(58)      |                      |
| 華嚴宗中德月淨寺住持 道行(58)      |                      |
| 華嚴宗中德深原寺住持 宗和(58)      |                      |
| 曹溪宗參學銀海寺持音 儀正(58)      |                      |

| 대방광불화엄경소             |        |
|----------------------|--------|
| 승려                   | 그 외 인물 |
| 前安國寺持音參學 草雲(58)      |        |
| 淨土寺持音參學 熙雄(58)       |        |
| 前復興寺持音參學 守仁(58)      |        |
| 舊開心寺持音參學 信湛(58)      |        |
| 梵堀寺持音信誠記付 李孝達(58)    |        |
| 華嚴宗中德月淨寺住持 學尙(95)    |        |
| 前梵堀持任 信誠(99)         |        |
| 前修證寺持音 道信(99)        |        |
| 華嚴宗中德法興寺住持 玄敏(104)   |        |
| 曹溪宗參學深源寺持任 玲俊(104)   |        |
| 前佛臺寺持任參學 戒罔(104)     |        |
| 曹溪宗大師前檜岩寺住持 義卞(105)  |        |
| 華嚴宗中德華藏寺住持 釋熙(105)   |        |
| 華嚴宗中德前成佛寺住持 自圓(105)  |        |
| 華嚴宗參學前上元寺住持 六通(105)  |        |
| 施主曹溪宗坐元 夢子(106)      |        |
| 施主華嚴宗參學 戒熙(106)      |        |
| 施主前辟寺持任 竺玲(106)      |        |
| 前檜岩寺住持中德 天玲(112)     |        |
| 前正因寺住持中德 信玄(112)     |        |
| 前龍門寺主持中德 雪峻(112)     |        |
| 大施主前田穀寺持住 性文(118)    |        |
| 前□佛寺住持參學 祖彥(118)     |        |
| 前佛教寺住持參學 自淳(118)     |        |
| 前妙明寺住持 戒元(118)       |        |
| 華嚴宗大教師前衍慶寺住持 靈雲(120) |        |
| 華嚴宗大教師 敬峯(120)       |        |

| 십지경론                       |        |
|----------------------------|--------|
| 승려                         | 그 외 인물 |
| 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 普雨(2,4,5,6) |        |
| 判敎宗事都大師兼奉先寺住持 天則(2,4,5,6)  |        |
| 前衍慶寺住持中德 靈雲(2,3,4,6)       |        |
| 前深源寺住持參學 學尙(2,3,6)         |        |
| 前寶城寺住持大選 道行(2,6)           |        |
| 前雙溪寺住持參學 懷正(2,6)           |        |
| 前普光寺住持參學 宗和(5,6)           |        |

| 십지경론                                                                                                                                                                   |        |
|------------------------------------------------------------------------------------------------------------------------------------------------------------------------|--------|
| 승려                                                                                                                                                                     | 그 외 인물 |
| 前雙溪寺持任參學 懷正(2)<br>大施主 覺圓(2)<br>大施主 性恩(2)<br>前神光寺住持大師 契默(6)<br>前神光寺住持中德 玄敏(6)<br>前成佛寺住持大選 自圓(6)<br>前烟奉寺住持大選 祥雲(6)<br>前正陽寺住持參學 法慈(6)<br>前文川寺住持參學 玄旭(6)<br>前永燈寺住持參學 敬緝(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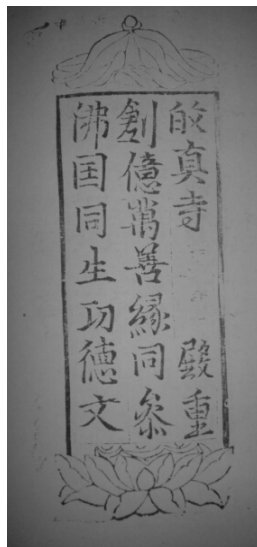
<표 3>을 통해서 상당히 폭넓은 발원 및 시주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두 경전에 공통적으로 발원 및 시주를 했던 인물들도 다수 있었다. 위의 간행에 참여한 인물 중 승려들은 대부분 절의 주지를 역임했던 높은 위치에 있었다. 또한 『대방광불화엄경소』에는 그 지역의 어모장군(禦侮將軍), 여사(旅師), 서흥부(瑞興府) 기관(記官), 전(前) 참봉(參奉) 등의 인물들이 시주했는데, 개성부(開城府), 평안도(平安道) 등의 서흥 이외 거리가 먼 지역 시주자들은 지역명을 밝히고 있다.

특히나 당시 불교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判禪宗事都大禪師 普雨, 判教宗事都大師 天則, 教宗判事都大師 一珠, 判禪宗事都大禪師 一雄, 判教宗事都大教師 雪梅 등 선종 및 교종 구분 없이 중심이 되는 인물들과 화엄종, 조계종, 정토종 등 다양한 종파의 사찰 주지들이 간행에 발원하였다는 것은 이 경전들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에 인물 및 종파와 관계없이 불교계에서 공통적으로 간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완성도 높은 이 경전들이 귀진사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귀진사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보우는 『대방광불화엄경소』와 『십지경론』 이외에 『용감수감』의 간행에도 참여하였는데 간행 목적을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앞의 두 경전과 달리 『용감수감』의 간행 목적은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앞의 두 경전과 달리 『용감수감』

은 판선종도대선사인 보우 보다는 판교종도대사인 천측이 더 공을 들여서 경전 간행에 발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전 권말에 나오는 발원자들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용감수감』 간행본에서 발원자는 『대방광불화엄경소』와 『십지경론』과 달리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 普雨’와 ‘大功德主判教宗事都大師兼奉先寺住持 天則’으로 발원자가 대표되며, 권2 말엽의 ‘監刊 華嚴宗中德成佛寺住持 玄達’과 ‘一卷成佛寺僧人 茅 開刊’, 그리고 알선도인, 화주 등의 인물 정도만 관각되어 있을 뿐이다. 이 중 보우가 당시 문정왕후의 신임을 받으며 승려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권말에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실제로 천측의 이름 앞에 보우에는 없는 ‘大功德主’라는 명칭이 있다. 이는 『용감수감』의 간행 중심이 보우 보다는 천측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sup>37)</sup> 따라서 이 기록을 통해서 보우가 『용감수감』 간행 및 귀진사의 건물 건립을 독자적으로 주도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며, 『십지경론』 및 『대방광불화엄경소』와 달리 발원자 및 시주자에 대한 명단이 극히 적은 것은 『용감수감』의 간행 배경을 두 경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 경전이 간행된다면, 천측 보다는 당연히 보우의 이름 앞에 ‘대공덕주’라는 명칭이 붙었을 것이며 임금 등을 기리는 ‘봉축’ 등의 글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전의 간행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보우, 천측 두 인물의 어떠한 개인적 관심사에서 간행된 경전이며 ‘대공덕주’라는 명칭을 통해서 보우보다는 천측에 간행의 중심이 조금은 더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7) 신상현, “조선본 『용감수감(龍龕手鑑)』의 판본과 특징에 대한 고찰,” 『한문학보』 제14호 (2006. 6), 401쪽에 의하면 발원자에 대하여 ‘大功德主 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 普雨…’ 라고 하여 대공덕주를 보우로 보고 이 경전 간행에 보우의 영향이 컸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간행본을 확인해 본 결과 天則의 앞에 대공덕주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용감수감』 패기

한편, 이 경전을 통해서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전 권1 표지 이면에 찍힌 패기이다. 패기를 살펴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 다만 ‘皈眞寺□□殿重創億萬善緣同參佛國同生功德文’이라는 글만 찍혀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건물이 중창된 후 그에 대한 공덕문을 썼음을 알 수 있는데, 귀진사의 어떠한 건물인지는 해당 부분이 도각되어 알 수가 없다. 다만, 『용감수감』의 간행시기는 권말의 간기인 ‘嘉靖四十二年高德山歸眞寺開板’을 통해서 명종 18년(1563)으로 알 수 있는데, 경전 첫 권의 표지 이면에 이 패기를 찍었다는 것은 책을 간행할 당시 ‘□□殿’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귀진사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본다면 『귀진사사적비』에 가정 41년(1562) 4월에 대장전을 건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sup>38)</sup> 이 책이 간행된 시기가 대장전을 건립하기 시작한지 1년 후이므로, 패기에 등장하는 건물은 대장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선종과 교종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두 승려

38) 『歸眞寺事蹟碑』 중: “...而大藏殿則嘉靖四十一年壬戌四月經始焉...”

인 보우와 천축이 주체가 되어서 간행한 경전의 가장 앞면에 이와 같은 패기를 찍었다는 것은 두 승려가 귀진사의 대장전 건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대장전에는 간행한 『용감수감』의 목판이 보관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1928년에 귀진사를 보수할 때 대장전은 보이지 않았는데, 극락전 천정에서 『용감수감』을 비롯한 수많은 불경판목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sup>39)</sup> 이 불경판목들은 대장전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적인 사료만으로는 이 패기에 등장하는 중창 대상의 건물이 대장전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으나, 어떠한 건물이든 사찰 건물의 중창 관련 기록을 보우와 천축이 주체로 간행한 경전 가장 앞에 찍었다는 것은 두 승려가 귀진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밖의 간행 경전에 대해서는 세 차례 달리 간행된 『부모은중경』을 제외하고는 보우·천축 등 중요한 불교계 인물이 간행에 참여 하지 않았다.<sup>40)</sup> 다만 직접적으로 발원자의 명단에 보우와 천축 등 당시 불교계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보우와 교유관계를 형성했던 신묵(信默)이<sup>41)</sup> 『금강경오가해』에서 화사(化士)로 간행에 참여했다는 점은 귀진사 경전 간행에 이 인물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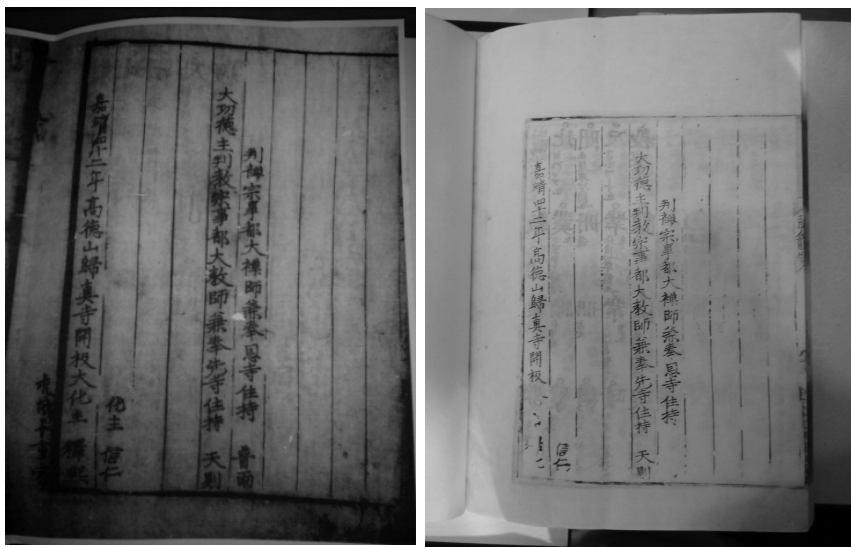
이 같이 귀진사의 간행본에서 알 수 있는 특징들 중 중요시 되는 부분이 귀진사와 당대 불교계의 고승인 보우, 천축 등 인물들과의 관계성이다. 보우는 명종대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서 세력을 크게 떨쳤던 승려였으며, 천축은 당시 교종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승려였다. 이 두 승려가 귀진사의 경전 간행은 물론이며 건물 중창에도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 당시 귀진사의 입지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접적인 기록 이외에는 보우 등의 인물이 왜 귀진사와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천축이 어떠한 인물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보우의 문집인 『허응당집(虛應堂集)』과 『나암잡저(懶庵雜著)』 등에는 보우가

39) 리기웅, 변룡문, 김수용, 『귀진사』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30.

40)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모은중경』은 현존본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41) 『虛應堂集』 卷上에 ‘示信默上人’이라는 이름의 시가 수록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보우는 신묵과 교유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귀진사, 또는 황해도에 머물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귀진사에서 간행한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보우가 문정왕후 승하 이후에 제주도에 유배되고 결국 참형을 당하였는데,<sup>42)</sup> 이를 통해서 당시 역적으로 치부된 보우의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7> 규장각의 『용감수감』 초기본과 버클리대학교의 『용감수감』 후쇄본

이는 귀진사 간행본인 『용감수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후쇄본으로 추정되는 『용감수감』에는 보우의 이름이 도각되어 보이지 않는다. 단편적인 정보이지만, 이름을 지운 후 경전을 간행했다는 것은 경전뿐만 아니라 보우와 관련된 기록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우와 관련된 현존하는 자료는 보우가 저술한 저서 및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귀진사 간행본의 큰 특징인 간행본과 보우 등 불교계 중심 인물과의 관련성은 문정왕후 승하 이후로 불교계가 다시 쇠퇴하였고, 그에 따라서 관련 기록들이 현존하지

42) 『명종실록』 명종 21년(1566) 4월 20일 신사조.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간행본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귀진사는 명종대 짧은 시기 불교의 증흥과 함께 했던 크게 성장했던 사찰이었으며 그러한 위치에서 다양한 경전을 남겼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4. 결 론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명종대 불교 경전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진 귀진사와 그 사찰의 간행 불경을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귀진사 간행본은 한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종대 간행본으로, 간행본 분석을 통해서 명종대 불교의 흥망성쇠와 귀진사가 함께 했음을 주목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귀진사의 역사적 성격을 다루고자 하였는데, 특히 그 중 귀진사와 성수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범우고』 등 여러 사료에서 귀진사와 성수사를 동일한 사찰인지 아닌지 혼동하고 있는데, 여러 사료들을 비교 검토하고 두 사찰의 간행본에 나타난 체제, 간기, 각수 등의 사항을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황해도 서흥 고덕산에서 상당히 근접한 위치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던 두 사찰이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다가 결국 귀진사라는 하나의 사찰로 통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둘째, 귀진사 간행본들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서지적인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귀진사 간행본은 『고사촬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동자습』, 『십칠사략』 2종을 제외하고는, 『부모은중경』, 『연경별찬』, 『불조삼경』, 『묘법연화경』, 『십지경론』, 『금강경오가해』, 『능엄경』, 『용감수감』, 『대방광불화엄경소』, 『계초심학인문』의 10종이 현존본으로 확인된다. 그 중 상당히 정교한 형태로 간행된 판본으로는 『십지경론』, 『용감수감』, 『대방광불화엄경소』가 있으며, 『불조삼경』은 평양부에서 판을 새겨서 귀진사에 옮겨 보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은중경』

은 현존본은 직접 살펴볼 수 없었으나 귀진사에서 세 번의 간행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셋째, 귀진사 간행 경전의 특징적인 면에 집중하여 귀진사의 불교문화사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현존본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명종대의 보우 등 불교 주요 위치에 있었던 승려들과 귀진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 관계가 면밀하게 드러나는 경전은 『십지경론』과 『대방광불화엄경소』가 있었으며, 『용감수감』을 통해서는 귀진사 건물 건립 등 운영에 보우, 천축 등의 승려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십지경론』과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명종대에 다시 실시된 승과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두 경전으로, 이 경전들이 당시 불교계 대표 승려들의 발원에 의해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명종대 귀진사의 번성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귀진사의 간행 경전은 귀진사가 명종대 불교의 흐름 속에서 성장한 사찰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귀진사의 가치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귀진사의 역사적 연혁 및 사찰과 명종대 고승들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사료가 상당히 부족한 편으로 보우 등 귀진사 간행본에 등장하는 승려들과 관계된 사료의 발굴이 필요하며, 귀진사에서 세 번 간행된 『부모은중경』도 실사를 통해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經國大典』. / 『新增東國輿地勝覽』. / 『成宗實錄』. / 『明宗實錄』. / 『高麗史節要』.  
/ 『清芬室書目』. / 『梵字攷』. / 『瑞興誌』. / 『瑞興府誌』. / 『虛應堂集』.  
/ 『蓮經別讚』. / 『佛祖三經』. / 『妙法蓮華經』. / 『十地經論』. / 『金剛經五  
家解』. / 『楞嚴經』. / 『龍龕手鑑』. / 『大方廣佛華嚴經疏』. / 『誠初心學人  
文』. / 『歸眞寺事蹟碑』. / 『東輿圖』. / 『大東輿地圖』. / 『輿地圖』.  
리기웅, 변룡문, 김수용. 『귀진사』.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 남권희 등저.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서울: 글항아리, 2014.
- 黃海道教育會. 『黃海道郷土誌』. 海州: 黃海道教育會, 昭和12[1937].
- 박도화. “朝鮮時代 佛教版畫의 樣式과 刻手.” 『강좌미술사』 제29호(2007. 12). 175-212.
- 송일기. “韓國本 『父母恩重經:漢文』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19집 (2000. 6). 179-218.
- 신상현. “조선본 『용감수감(龍龕手鑑)』의 판본과 특징에 대한 고찰.” 『한문학보』 제14호(2006. 6). 393-424.
- 오경후. “正祖의 佛教政策과 梵字考의 佛教史的 價値.” 『佛敎學報』 제63집 (2012. 12). 253-278.
- 이상백. “『佛祖三經』의 간행과 판본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학원. 2012.

